

 인천신용보증재단 INCHEON CREDIT GUARANTEE FOUNDATION		보 도 자 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6년 7월 15일(수) 총 2매 (사진 별도)	
담당 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담 당 자	전략기획부 홍순성 부 장 ☎ 032-457-7925	
			전략기획부 이호동 부부장 ☎ 032-457-7927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재기지원 체계 강화

- 정책기금 연계 · 자체 채권소각 등 채무조정 지원
- 맞춤형 경영지도 사업으로 경영 안정 뒷받침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장기 채무 상환 부담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재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단은 2026년을 “소상공인 신용회복 및 재기지원을 위한 특별 채무 감면 조치의 해”로 정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손해금 전액 감면 조치 운영 기간을 6개월 이상 늘려 운영 중이다. 일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서는 상환 기간을 최장 8년까지 연장하는 분할 상환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 정책기금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정부 주도하에 채무조정 사업을 추진하는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에 각 435억원, 231억원 등 총 666억원 규모의 채권을 상반기에 매각해 채무자가 채무 조정, 채권 소각 등 체계적인 신용회복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단 자체 채권 소각을 별도로 추진하여 상반기 150억원을 소각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 한편 재단은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도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생존을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재도전 교육, 위기 소상공인 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인천신용보증재단 이부현 이사장은 “장기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기지원 체계를 강화하게 되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정책자금 연계와 채권 소각 등 실효성 있는 재기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